



성체는 영원한 행복의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유일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끝맺는 자유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 내 삶의 계획은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 성체이신 하느님 앞에 머무르면 성인이 됩니다.
 - 오늘 가장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은 내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거룩함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 나를 비우고 하느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를 위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 우리는 모두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가 복사본으로 살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 목주기도는 천국에 오르는 가장 짧은 계단입니다.
 - 예수님께서 성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 마음 안에 스며드는 능력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 엄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삶의 신비를 경험할 준비를 해야 해요.
- 성 카를로 아쿠티스 —

2000년대를 우리와 함께 살았던 한 소년 성자의 이야기

성 카를로 아쿠티스 (San Carlo Acutis)



1991 ~ 2006

소란스런 디지털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불꽃을 앞으로 뺄뚱히 내밀고 있는 한 소년.
2000년대를 우리와 함께 살았던 순수한 한 소년 성자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

대중 매체 선용을 위한 기도

-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말씀이신 성자를 보내 주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사도들을 부르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나이다.
 - 하느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저희에게 여러 가지 대중 매체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 선물의 뜻을 잘 깨달아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게 하소서.
 -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무엇보다 커진 오늘날
특히 대중 매체 종사자들과 관리자들이
바른 양심을 지니고
매체들을 향락과 정치 도구로
그릇되게 쓰는 일이 없게 하소서.
 - 대중 매체를 이용하는 이들도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주님 뜻에 어긋나고 인간의 품위를 해치는 온갖 것을 피하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하여 쓰게 하소서.
- © 아멘.

국내 최초 가톨릭 OTT!
cpbc플러스



내 삶에 신앙 더하기



cpbc플러스



iOS



안드로이드

지금 다운로드하고 무료로 이용하세요

www.cpbc.co.kr

2000년대를 우리와 함께 살았던
한 소년 성자의 이야기

성 카를로 아쿠티스

(San Carlo Acutis)

2000년대를 우리와 함께 살았던
한 소년 성자의 이야기

성 카를로 아쿠티스 (San Carlo Acutis)



성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QR을 확인하세요

이 소책자의 원고는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진행한 안토니아 살자노(성 카를로 아쿠티스 어머니) 여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카를로 아쿠티스의 유해가 모셔진 아씨시의 마르코 가발로 신부, 프란치스카 수녀(카푸친 선교수녀회), 성체성사의 기적이 일어난 란치아노 성지의 프라 산티노 종신부제(곤벤뚜알 프란치스코회)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순수(純粹)를 향한 초대장, 성 카를로 아쿠티스

우리 모두는 본래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나쁜 상황과 관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순수함을 잃거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고 싶어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순수한 영혼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힘들지만 지켜내야 할 순수한 영혼은 여러 가지 사사로운 욕심과 욕망에 흔들려 본래의 빛을 잃기도 하고 때론 갈망과 집착에 휘둘리면서 그것이 불행인지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해가는 자신 안에는 다시 그 순수함을 찾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늘 한켠에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갈증이 날수록 맑고 시원한 샘터의 샘물이 그리워지듯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가는 순수한 영혼은 어디엔가 있을 그 순수한 영혼의 샘터를 갈망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는 그 순수함을 어떻게든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수함을 지향하며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우리 현대인이 찾는 순수한 영혼의 샘터이며 영혼의 갈증을 해결을 줄 맑은 샘물이며 희망이라 생각됩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우리에게 늦어도 좋고 천천히 가도 좋으니 제발 그 순수함을 향한 여정을 그만두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 힘겨운 여정엔 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지치지 말고 그 여정을 꾸준히 함께 걸어가자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순수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미디어를 자기 욕심과 욕망의 도구로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미디어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문제임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칼도 잘못 사용하면 끔찍한 결과를 낳는 무기가 될 수 있듯, 현대인에게 미디어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더 많이 보며, 무엇을 더 많이 듣고,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미디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성체의 기적들을 정리하여 알려주고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성모님의 발현 사건과 그 메시지들을 많은 이들, 특히 동료 또 래들에게 알려준 ‘미디어 사도’의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자기 주변 친구들과 아름답게 나누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순수한 마음과 정신을 보다 많은 분과 나누고 싶고 또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자고 초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의 제2의 주보 성인이시기도 한, 성 카를로 아쿠티스를 본받아 ‘절대 순수인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지치지 말고, 그리고 멈추지 말고 함께 꾸준히 걸어가기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특히,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WYD)를 앞두고 보다 많은 분과 이 성인의 정신과 마음을 나누어 가지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이사장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 욥 주교**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자주 찾았던 이탈리아 라베르나 성지의 십자가.
라베르나는 성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은 곳이다.

작은 불꽃

하느님이 진짜 존재하냐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성체에 현존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 성모님의 발현을 믿지 못하겠다고?

15세 소년이 생생히 증언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성모 마리아의 애타는 마음,

인간 생명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언했다.

그 증언이 확고하다.

소년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을 훌쩍 놓았다.

소년은 인간이 도달하기 힘든 신비를 깨달았다.

그 깨달음의 선물을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물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었다.

소란스런 디지털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불꽃을 앞쪽으로 뺄뚱히 내밀고 있는 한 소년,

2000년대를 우리와 함께 걸었던 순수한 한 소년 성자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



04	순수(純粹)를 향한 초대장, 성 카를로 아쿠티스 _ 구요비 욥 주교
08	작은 불꽃
12	소년은 알고 있었다
17	시간을 앞서간 아이
22	첫영성체
28	9살의 천사
32	컴퓨터 영재
40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 성체
45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묵주기도
50	성 프란치스코
54	2006년 10월 12일 그 이후
59	기적 그리고 시복과 시성
64	소년이 온다
부록	
70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세상에 남긴 말
72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걸은 길, 그리고 걷는 길



소년은 알고 있었다



소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곧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2006년 10월 2일 월요일

목에 염증이 생겼다. 의사가 15세 소년을 진찰했다. 단순 감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의사가 3일 동안 두 번이나 소년을 진찰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는 큰 병이 숨어있다는 걸 몰랐다.

평소처럼 약 먹고 폭 쉬면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10월 8일 주일

매일 미사를 거르지 않았던 소년은 이날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성당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부모는 소년을 밀라노의 ‘데 마рки 클리닉’(De Marchi Clinic)

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진단명이 나왔다.

급성 백혈병(M3형).

10월 9일 월요일

부모는 급히 백혈병 전문 병원인 몬차의 산 제라르도 병원(San Gerardo Hospital)으로 소년을 이송시켰다.

10월 10일 화요일

밝은 모습으로 뛰어다니던 소년의 몸은 감기 증상이 나타난 지 불과 8일 만에 손쓸 틈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소년은 병자성사와 영성체를 원했다.

10월 11일 수요일

소년은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은 소년을 중환자실로 옮겨 혈액 정화 치료를 실시했다. 하지만...

오후 5시, 소년은 뇌사 판정을 받았다.

2006년 10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45분

감기 증상이 나타난 지 10일 만에 소년의 심장이 멈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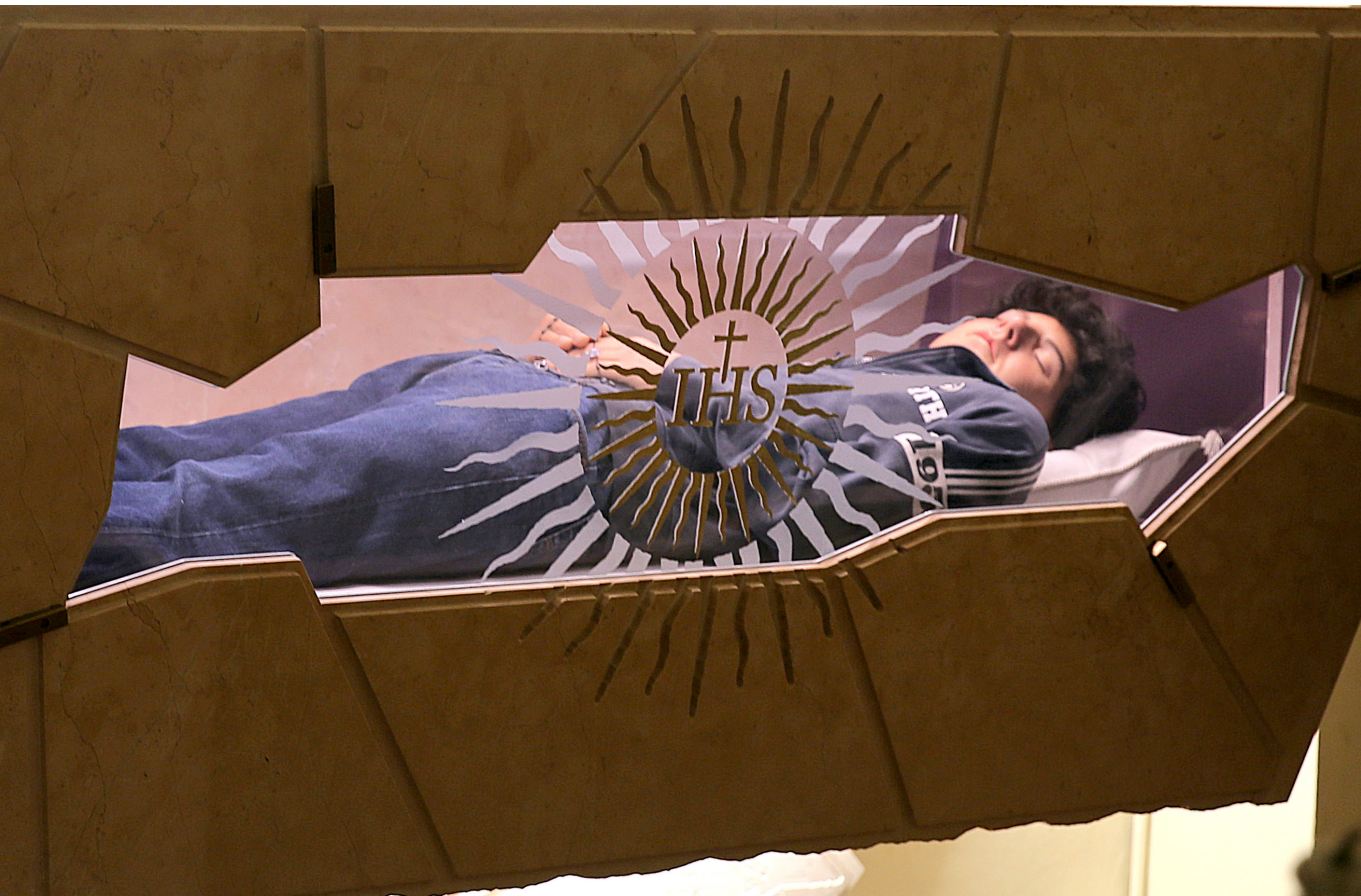
병실 창문 밖으로 해가 떨어지고 있었다. 세상이 어둑해졌다.

싱싱한 푸름이 역력했던 그 가을 좋은 날, 15세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Carlo Acutis)는 세상에 순수한 신앙 한 조각을 남기고 그렇게 하늘로 떠났다.

소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하느님 나라로 곧 들어간다는 것을...

어머니 안토니아 살자노 아쿠티스(Antonia Salzano Acutis)의 회상에 따르면, 아들 카를로 아쿠티스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는 뇌출혈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은 사실이었다. 카를로는 실제로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 성해

카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죽음은 참된 삶, 사랑하는 예수님과 만남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소년에게는 산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마태 17,20 참조)

소년은 죽기 3개월 전,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예상치 못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내 몸무게가 70kg이 되었을 때, 나는 죽을 운명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영원을 위해 인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다.

급속히 병세가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절정에 이른 시점에서도 카를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바칩니다. 나는 연옥으로 가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죽음과 맞선 소년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편안하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죽음을 받아들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번은 의사가 “고통스럽니?”라고 물었다. 카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소년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증거했다.

의식의 끝자락을 부여잡았을 때, 카를로는 어머니에게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통
로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삶의 신비를 경험할 준비를 해
야해요.”(Carlo Acutis : Millennial generation has a Blessed – Vatican News,
2020.10.10.)

소년이 세상에 온 것은 15년 전인 1991년 5월 3일, 따뜻한 봄날이었다.

시간을 앞서간 아이



소련이 붕괴되고 미·소 냉전이 종식된 그해였다.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낙
관과 희망이 넘쳐나던 그해, 하느님은 앞으로 더 큰 혼돈 속에서 살아갈 미래 MZ 세대를 예
비하는 한 맑은 영혼을 보내주셨다.

1991년 5월 3일, 카를로 아쿠티스는 직장 때문에 영국 런던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인 안드레
아 아쿠티스와 안토니아 살자노 사이에서 태어났다.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부
모는 카를로가 태어난지 15일 후인 5월 18일, 파티마 성모를 주보로 모신 ‘고통의 성모 성당’
에서 유아세례를 받게 했다.

이후 4개월 뒤인 9월, 부모는 카를로와 함께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주했다. 부모는 일을 해
야했고, 카를로 양육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와 폴란드 출신 보모가 맡았다.

부모와 보모들의 열심한 신앙이 카를로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예고된
섭리의 결과였을까. 카를로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루카 2,40)



카를로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싫어했다. 카를로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빼앗기고 돌아오자 부모가 “남에게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자 4살 아기 카를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화를 내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카를로는 영적인 면을 포함해 모든 면에서 '시간을 앞서간 아이'였다. 태어난지 100일 만에 첫 말(아빠)을 하고, 4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라고 말했다. 카를로는 또 세 돌이 채 되기 전부터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부모와 함께 공원에 갈 때 혹은 시장에 갈 때 성당이 보이면 항상 성당에 들어가자며 부모 손을 끌었다. 성당에 들어가면 아기는 십자가와 성체 앞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루카 2,49)



첫영성체

어린 카를로는 성당과 십자가, 성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신앙 지식도 또래에 비해 남달랐다. 그래서 카를로는 예외적으로 허락을 받아 7세 때, 페레고(Perego)에 있는 성 암브로시오의 로미테 수녀원(Convent of the Romite Sisters of Saint Ambrose)에서 첫영성체(First Communion)를 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바오로 6세 교황의 비서였던 파스칼리 마키 주교가 함께했다.

이날 표징이 나타난다.

첫영성체를 위해 부모가 차를 몰고 수도원으로 가는데 갑자기 양 떼가 나타난 것이다. 카를로 가족은 양떼가 모두 지나갈 때까지 한참동안 차안에 머물러야 했다. 그 길은 평소 양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카를로가 태어난 후 첫 번째로 받은 선물이 양 인형이었고, 유아세례를 받은 후 열린 축하식 케이크에도 양이 있었다. 그런데 카를로가 첫영성체를 위해 가는 그 길에도 양이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는 카를로의 짧은 삶 곳곳에 나타난 ‘양’을 표징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7살 꼬마 아이 카를로는 첫영성체를 계기로 더욱 깊은 영적 성장을 보인다. 꼬마 카를로는 첫영성체 직후 이렇게 썼다.

“나는 항상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 계획입니다.”

카를로는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후 카를로는 선종할 때까지 매일 미사를 거르지 않았고, 매일 성체 조배를 했다.

6살부터 시작한 묵주기도도 거의 매일 거르지 않았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아이의 신심은 구체적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누군가 ‘네 셔츠 멋지다’라고 하면 바로 그 셔츠를 선물로 주고 싶어 했다. 먹을 것이 있으면 항상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권했다. 그리고 나서야 “저도 하나 먹어도 될까요?”라고 했다. 마리아를 닮은, 관대하고 순명적인 이런 태도는 중등과정 때까지 계속됐다. 15살이 되어서도 집에서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머니에게 “저 물 한 잔 마셔도 돼요?”라고 허락을 구한 후 마셨다.

카를로의 이런 모든 행동은 단순히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교육 때문도 아니었다. 꼬마 카를로의 소위 착한 행동은 젠틀맨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카를로는 늘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머물렀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동했다. 공부, 놀이를 포함한 모든 일상이 예수님 안에서 이뤄졌다.

카를로에게 하느님은 먼 존재가 아니었다. 하느님의 현존을 삶에서 실제로 느끼며 살았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겉듯이 그렇게 카를로는 인생을 걸었다. 카를로의 삶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차 있었다.

그렇게 소년 카를로의 삶에는 이미 신비로운 영적인 삶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9살의 천사

“많은 영혼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희생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9살 꼬마 카를로의 신앙적 삶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밀라노 같은 대도시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인사조차 건네기 힘들 정도로 까칠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아는 사람을 봐도 모른 척 지나치곤 한다. 하지만 9살 카를로는 달랐다.

카를로 가족은 밀라노 중심부에 살았는데,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았다. 카를로는 ‘나는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따뜻한 집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리에서 자야 하잖아’라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내가 저축한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리고 부모의 허락을 받아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척에게 받은 용돈으로 침낭, 담요, 음식 등을 사서 노숙자에게 나눠줬다. 게다가 이런 카를로의 행동은 체계적이기까지 했다. 예를 들



어, 음식 그릇마다 이름표를 붙여서 각각 누구 것인지 정해 놓는 식이었다.

9살 때부터 노숙자들을 위한 나눔을 시작한 카를로의 활동은 점차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 처음에는 음식이나 물건만 나눠 주었는데, 차츰 노숙자들에게 샤워할 수 있는 곳, 무료 식사 제공 장소, 공공 주택을 신청하는 방법, 옷을 얻는 곳 등을 알려주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훗날 카를로의 장례식에 많은 노숙자가 찾아왔다. 성당이 사람들로 가득차 늦게 온 이들은 성당 밖에서 장례 미사에 참여해야 했다. 그들은 9살 소년의 나눔을 잊지 않았다.

카를로는 노숙자들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였다. 카를로는 밝고 유쾌한 성격이어서 누구나 그를 좋아했다. 소위 왕따를 당하는 친구, 내성적인 친구가 있으면 항상 옆에서 챙겨줬다. 또,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의 친구,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등 옆에서 힘이 되어 주고 싶어했다.



컴퓨터 영재

카를로는 컴퓨터 영재였다.

7살 때부터 어도비(Adobe) 일러스트 프로그램, 마야(Maya) 같은 디자인 작업 프로그램 등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았다. 영상을 찍어 편집하는 것도 좋아했다.

9살 때는 밀라노 공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전문 서적을 읽을 정도였고, 통계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C++(c 언어의 확장판으로 만들어진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룰 줄 알았다. 그런데 카를로는 이런 특별한 재능을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과거의 신앙 전파 도구나 홍보 매체가 책이나 잡지였다면 카를로에게는 컴퓨터와 영상물이 자신이 체험한 신앙을 전하는 도구였다. 카를로는 성체성사의 성변화를 주제로 한 만화 영상도 만들었다. 밀라노의 예수회 사제들이 청소년 자선 프로젝트를 위해 웹사이트가 필요할 때도 나서서 만들어줬다. 어머니가 바티칸의 순교자 관련 학술원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카를로가 순교자 안내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9세 아이가 이 모든 일을 해냈다!

카를로는 자신의 재능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그렇다고 해서 카를로가 어두운 방안에 틀어박혀 컴퓨터 자판만 두들겼던 것은 아니다. 그는 유쾌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집에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었는데, ‘스타워즈’를 패러디해



서 고양이는 악당, 강아지는 영웅으로 등장시키는 영화를 만들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상영회를 열었고, 동물들의 목소리를 흉내 내서 모두 웃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도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힘든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진보한 기술을 이용해 복음을 전한 것이다.

카를로가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만든 최고의 복음선포 도구는 성체 기적 웹사이트다.

2006년 10월 4일, 교회가 승인한 세계 모든 성체의 기적과 성모 발현을 담은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2002년 이탈리아의 대규모 가톨릭 행사인 '리미니 회의'(Meeting per l'amicizia fra i popoli, 민족간 우호를 위한 만남)에 참석한 카를로는 성체 기적을 더 잘 알





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후 2004년에 전세계에서 보고된 성체 기적과 성모 발현을 웹사이트 개발에 착수했다. 교회가 인정한 성체 기적을 가족과 함께 조사했고, 각 기적의 사진과 내용을 정리해 전시물을 제작했다. 60×80cm 크기의 전시 패널들을 완성했고, 이 전시물들을 별도로 온라인 공간에 올렸다. 카를로의 성체 기적 전시회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전시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 주교회의가 전시회를 공식 후원했다. 과달루페 성지, 파티마 성지 등에서도 전시가 열렸다. 특히 미국에서의 호응이 컸다.

미국에서는 1만개가 넘는 본당이 카를로의 이 자료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카를로가 제작한 성체기적 웹사이트는 미국 주교회의의 성체 신심 운동 대표 자료로 선택됐다.

카를로는 그러나 자신과 또래들에게 인터넷과 게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게임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한번은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사줬는데, 카를로는 그 어두운 면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8살 때 ‘미국에서는 비디오 게임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나는 일주일에 최대 한 시간만 게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를로는 또 인터넷에 퍼져있는 유해 영상들에 대해서는 친구들에게 경고했다. 카를로는 인터넷에 의해 성적인 문제에 빠진 친구들을 걱정했다. 그는 **“몸은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

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을 물건처럼 이용하는 건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카를로는 순결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친구들과 주변 어른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수천 번의 전쟁에서 이긴다고 한들 우리 자신의 타락한 욕망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카를로는 또 “디지털이나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했다. 그는 인터넷이 가진 긍정적인 힘을 믿었다. 물론 어두운 면이 있지만,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힘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현대세계의 신앙 위기를 알아차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카를로는 청소년뿐 아니라 교회 내 사제들이나 기성세대에게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복음 선포 도구를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복음화가 필요한 공간으로서 디지털 세계도 있다는 것이다. 예전엔 선교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다른 대륙으로 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선교지가 열렸다고 카를로는 말하고 있었다.

카를로는 말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교회가 복음적인 콘텐츠로, 삶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급격히 변화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 성체

10대 소년이 성체의 위대한 신비를 돌파해낸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사람들은 콘서트나 축구장 앞에는 줄을 서지만, 성체 앞에는 줄을 서지 않아요.”

소년 카를로는 성체 조배의 충만한 행복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카를로는 첫영성체를 한 후 매일 미사에 참여했다.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 첫영성체를 시작한 7세 이후 선종한 15세까지 8년 동안 매일 성체를 모신 것이다. 미사를 위해 성당에 가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다. 사랑과 열린 마음으로 성체성사에 가까이 다가 가면 삶 자체가 성체적인 삶으로 변화되기 마련. 이것이 바로 카를로의 성덕의 핵심이었다. 카를로는 예수님과 성체에 대한 깊은 내면의 사랑과 열망을 가진 소년이었다.

카를로는 축성된 성체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카를로는 이렇게 말했다.





“성체를 영한 후 15분 동안 하느님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내 안에 계십니다.”

“희미한 빛이 어두운 방에 들어오면 공기 중의 먼지를 육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빛줄기에 닿은 먼지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성체조배를 하면서 성체에서 나오는 빛에 감화되면 우리 영혼의 모든 먼지, 영혼을 더럽히고 거룩함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먼지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성체의 기적이 오랜 기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성체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매일 성체를 모시면 영혼은 성화되어 영원한 구원을 가로막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성체에 대해 깊은 신심을 가지다 보니, 간혹 사제가 습관적으로 미사를 집전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마음 아파했다. 그때 카를로는 옆에 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펼쳐진 손과 같아요. 마음을 모으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전례를 기계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돼요.”

혹시 죽음이 두려운가.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고 싶은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지금 깊은 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가. 삶의 의미를 모르겠는가. 카를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체는 영원한 행복의 하느님 나라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묵주기도

하루 종일 성모상 앞에서 기도만? 온종일 앉아서 묵주기도만?

소년 카를로의 묵주기도법은 달랐다. 카를로는 매일 묵주기도를 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하지는 않았다.

카를로에게는 자신만의 묵주기도 비법이 있었다. 끊어서 하기!

학교 갈 때 한 신비, 집으로 올 때 한 신비, 집에서 시간이 날 때 한 신비,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한 신비, 잠자기 전에 한 신비... 묵주기도를 한 번에 쭉 이어서 한 일은 거의 없었다. 카를로는 기도에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일상 속에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 늘 성모님과 함께 머물렀다.

카를로는 기도 안에 삶을 넣은 것이 아니라, 삶 안에 기도를 넣었다.

카를로는 어쩌다 성모님 덕후가 됐을까?

어린 시절 카를로의 마음에 성모님께 봉헌된 몇몇 성지들이 박혔다.

성모님께 봉헌된 성지들 중 폼페이에 있는 묵주기도의 성모 성지는 카를로의 삶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카를로가 폼페이 묵주기도의 성모 성지를 부모님과 같이 갔을 때였다. 그곳에서 꼬마 카를로는 친한 친구의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성모님께 전구를 청했다. 그 어머니는 30년 넘게 성체를 모시지 않고 고해성사도 하지 않았는데, 카를로의 기도 후에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했다. 나중에 친구로부터 어머니가 회개했다는 말을 들은 카를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카를로가 동정 성모님의 전구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후 카를로는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폼페이 묵주기도의 성모 성지에 가면 순례자들이 제의실에 있는 사제를 방문해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특별예식 전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카를로도 자신을 봉헌하고 싶어 했다. 카를로는 일곱 번이나 폼페이 묵주기도의 성모 성지에 가서 자신을 봉헌했다.

또 카를로가 살았던 밀라노의 한 성당에서는 정기적으로 신자들이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했다. 본당 주임신부는 봉헌 예식 후에 신자들에게 파란 리본이 달린 메달을 선물했는데, 카를로는 상당히 많은 메달을 가지고 있었다. 카를로는 이 메달들을 매우 아꼈다.

카를로의 성모 신심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성지는 프랑스 루르드 성모 발현 성지와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모 발현 성지다.



카를로가 가족 여행으로 루르드에 간 것은 12살이 되던 해였다. 왜? 카를로가 가자고 졸랐기 때문이다. 또 소원이던 파티마에 간 것은 카를로가 세상을 떠나기 8개월 전인 2006년 2월이었다. 이 여행을 통해 카를로의 성모신심은 더욱 깊어졌다.

위대한 소년 성자 카를로는 알고 있었다.

“성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훨씬 더 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카를로의 관심사는 하나였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이때 카를로의 관심을 끈 성인이 프란치스코다.

카를로는 800년 전 인물인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이탈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궁금했다. 1년 중 200일 이상을 최소한의 빵과 물만 먹으며 연명했던 성인의 엄격하고 희생적인 삶을 사랑하고 공경했다. 성 프란치스코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위대한 겸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겸손을 본받으려 노력했다. 카를로는 종종 이렇게 기도했다.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성인이 되게 해 주세요!”

카를로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상(Stigma,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긴 다섯 부위의 상처)의 은총을 받았던 ‘라 베르나’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 대해 묵상하기를 좋아했다.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을 벗어던진 성 프란치스코에 매료된 카를



로는, 허영과 교만 그리고 모든 위선을 포기한 성인의 겸손이 모든 고통을 이겨 낼 수 있게 했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어 성인으로 세우셨음을 알게 되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카를로에게 삶의 모델이었다. 실제로 카를로는 프란치스코를 통해 자신의 유일한 악습인 간헐적인 폭식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의 엄격한 삶은 카를로가 본받고 흉내내기 힘든 것이었다. 영감을 받았지만 삶의 방식은 달랐다.

카를로는 보통의 삶을 살았다. 카를로는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성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런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방식으로 성인이 되고 싶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너무 금욕적이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전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 성인이 되고 싶어요.”

결국 그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2006년 10월 12일 그 이후

파티마 성모 발현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온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006년 10월 12일, 감기증상이 나타난지 10일 만인 그날, 카를로는 하느님 나라로 떠났다.
카를로의 죽음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다.

“나는 나의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바칩니다. 나는 연옥으로 가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죽음과 맞서는 소년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편안하게, 그리고 당연하듯이 죽음을 받아들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카를로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이렇게 말한다.

“카를로는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대부분은 복사본으**

로 죽어요.’ 우리 모두는 독창적인 존재이며, 완전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카를로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실현해야 합니다.

카를로에게 사명이란, 독창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자주 이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모방하려 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독창성이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는 것이고, 그 사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실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제 아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인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를로는 죽기 3개월 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씨시에 묻히고 싶어요. 아씨시는 내가 가장 행복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카를로의 소망은 이뤄졌다.

아씨시에는 가족 소유의 집이 있었고, 카를로는 방학이 되면 몇 달씩 아씨시에서 보냈다. 카를로는 죽음 이후 자신이 늘 오가며 바라보았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이 내려다보이는 공동묘지 인근에 안장되었다.

선종 직후 그 탁월한 삶으로 인해 2012년 10월 12일 카를로의 시복과 시성을 위한 공적 조사가 착수되었고, 곧 ‘하느님의 종’(Servant of God)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어 2013년 5월 13일에는 교황청이 시복 시성 절차에 대한 문제 없음(Nihil Obstat)을 승인, ‘하느님의 종’ 칭호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후 카를로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신비스런 일들이 발생한다.

카를로의 무덤은 기도와 치유의 장소가 되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이들, 특히 암과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를 구하러 왔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치유되었다. 견진성사나 첫영성체를 앞둔 아이들도 부모의 손을 잡고 찾아왔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느님의 종’보다 높은 단계인 ‘가경자’(Venerable)로 모시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2016년 11월 24일 앙젤로 스콜라 추기경(Cardinal Angelo Scola)의 주재 아래, 밀라노 대교구청에서 교구 차원의 조사 절차가 종료되었고, 2018년 7월 5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카를로

를 가경자로 선언했다. 어떤 사람이 가경자로 선포되면, 교회는 가경자의 신심을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를 마련한다.

그래서 카를로의 유해를 어디에 모셔야 할지 논의가 시작됐다. 공동묘지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아씨시 주교와 카를로의 가족은 함께 장소를 고민하다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관련된 장소를 찾고자 했다. 그 결과 프란치스코가 옷을 벗어 던지고 세속과 인연을 끊은 장소인 아씨시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유해를 모시기로 했다. 프란치스코의 덕을 사랑했던 카를로 아쿠티스를 모시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유해가 안치되자 카를로 아쿠티스를 만나기 위한 순례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순례객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다.

현재 아씨시에는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찾아와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잡으며, 프란치스코, 클라라, 카를로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본다.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기적 그리고 시복과 시성



2018년 7월 5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카를로를 가경자로 선언한 후 이듬해인 2019년 1월 23일 카를로의 유해 발굴(Exhumation) 작업이 이뤄졌다.

이후 2020년 2월 교황 프란치스코 교령을 통해 첫 번째 기적의 진정성이 확인됐다. 그 첫 번째 기적은 다음과 같다.

2013년 브라질 캄포그란데의 한 성당에서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복을 위한 미사 및 전구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미사에는 카를로 아쿠티스의 유품도 함께 봉헌되었다. 이날 네 살의 마테우스와 엄마도 성당을 찾았다. 선천성 체장 질환을 안고 태어난 마테우스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했고, 늘 액체식에 의존해야 했다. 의사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마테우스와 엄마는 함께 간절히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했다. “이제 그만 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테우스는 엄마에게 자신이 나왔다고 말했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엄마는 마테우스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완치 판결을 내렸다.



희귀성 체장 질환으로 고통받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로 완치된 브라질 소년 마테우스

2018년 4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캄포 그란데 대교구의 기적 조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11월 19일에 열린 교황청 시성부의 의학 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마테우스의 병 치유가 신속하고 완전했으며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후 2020년 2월 4일 열린 추기경 및 주교단 회의에서 이 기적적 치유가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2020년 2월 22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성부로 하여금 기적에 관한 교령을 공포하도록 승인했다. 이러한 승인을 통해 2020년 10월 10일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서 카를로의 시복식이 거행되었고, 카를로는 디지털 시대의 복음 선포자

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느님은 카를로가 복자의 지위에만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2022년 코스타리카 여성 발레리아는 자전거 사고로 심한 머리 부상을 입었다. 뇌출혈이 일어났고 결국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에 빠졌다. 발레리아의 어머니 릴리아나는 아씨시에 있는 카를로의 유해 앞에서 딸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위독한 상태였던 발레리아는 인공호흡기 없이 호흡을 시작했고 언어 능력을 회복하였으며 다음 날에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뇌출혈의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두 개 이상의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성인품에 오를 수 있다. 2024년 5월 23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카를로 아쿠티스 전구로 인한 이 두 번째 기적을 인정해 시성 선포를 승인했고, 7월 1일 공식적으로 시성이 승인됐다. 시성식은 2025년 9월 7일 열렸다.

카를로 아쿠티스와 관련한 기적은 공식 인정된 것 이외에도 많았다.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카를로의 전구를 청하며 9일 기도를 한 후 임신이 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을 기적이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의미 있는 일임은 분명했다. 이밖에도 병이 낫거나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일도 많았다.

현재 카를로 아쿠티스의 유해가 있는 아씨시는 희망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

어떤 성인은 특정지역에 국한된 공경을 받지만, 카를로의 경우는 다르다. 유럽뿐 아니라 남미, 호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아씨시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다. 은총을 청하기 위해서다.

그 간절한 기도에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전구로 응답하고 있다.
아씨시는 이제 은총과 감사, 용서와 화해, 회개와 눈물의 현장이 되고 있다.



소년이 온다



1991년 5월 3일.

소년이 왔다.

육신을 취해 이 세상에 왔다.

순수하고 맑은 신앙. 원래 그런 신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소년 성자 카를로 아쿠티스가 그 편견을 뒤집었다. 카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축구, 농구, 테니스, 수영 같은 스포츠를 즐기고, 강아지를 사랑하고, 색소폰을 연주했다. 학교에서는 질문도 많이 하고, 선생님에게 장난을 잘 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느님은 성 카를로 아쿠티스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매일 이어가는 그 평범한 삶 안에 위대한 성자의 삶이 있다.”

2006년 10월 12일.

소년이 갔다.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할, 그 영원한 세상으로 갔다.

교회는 선택된 위대한 성자들이 인류의 욕심과 이기주의, 지적 교만이라는 고집스런 관성과 씨름해온 기록이다. 물론 선택은 모두가 받는다. 하지만 그 선택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이들은 소수다. 교회는 마땅히 그 겸손한 성자들의 역사다.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소년 성자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소년 성자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 아닐까. 소년 성인을 통해 드러난 신비와 현존을 옆에서 볼 수 있으니까.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9년 3월 25일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이후 청소년과 모든 하느님 백성을 대상으로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발표했다. 이 권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를로의 모범을 잘 살펴보고 새로운 사회 통신수단들을 선용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요청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 몰입, 고립, 공허한 쾌락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상에서도 창의력과 천재성을 보여주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카를로 아쿠티스가 그러합니다.”(104항)

지금,

소년이 온다.

이탈리아 아씨시 성 루피노 대성당 내,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심장을 모신 경당.

한 여인이 한쪽 무릎을 세우고 쪼그려 앉아 불을 붙였다. 초들은 느리게 탔다. 불꽃의 가장자리가 반투명한 날개처럼 파닥였다. 여인의 마음에 소년이 오고 있었다.

이제

우리 마음에도 소년이 온다.

믿음의 소년, 디지털 시대의 복음 선포자가 온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심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었던 그 소년이 온다.

그 소년이 희망의 끈을 놓고 있을지도 모를 이 시대의 청소년·청년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세상에 남긴 말

- ◎ 진짜 성공한 삶은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삶입니다.
- ◎ 연옥에 가지 않고 곧장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제가 겪어야 할 고통을 교황과 교회를 위해 주님께 바칩니다.
- ◎ 태양 앞에 서면 검게 그을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성인이 됩니다.
- ◎ 성체는 영원한 행복의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 ◎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유일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끝맺는 자유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 ◎ 내 삶의 계획은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 ◎ 성체이신 하느님 앞에 머무르면 성인이 됩니다.
- ◎ 오늘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내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 거룩함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느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 ◎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를 위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 ◎ 모든 사람을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대부분 복사본으로 죽습니다.
- ◎ 묵주기도는 천국에 오르는 가장 짧은 계단입니다.
- ◎ 예수님께서는 성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 마음 안에 스며드는 능력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 ◎ 엄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삶의 신비를 경험할 준비를 해야 해요.

성 카를로 아쿠티스가 걸은 길, 그리고 걷는 길

| 1991년 |

- 05월 03일 영국 런던의 '포틀랜드 클리닉'에서 태어남
- 05월 18일 슬픔의 성모 성당(Our Lady of Dolours Church)에서 조부모, 아드리아나 이모, 아드리아나 증조모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세례를 받음
- 09월 08일 가족이 영국 런던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귀국

| 1995년 |

밀라노의 파르코 파가니(Parco Pagani) 유치원에 입학

| 1997년 |

산 카를로(San Carlo) 학교에서 초등과정을 시작하지만, 가족의 뜻으로 세 달 후 토마세오(Tommaseo)학교로 전학, 그곳에서 성 마르첼리나 수녀회(Sisters of Saint Marcellina)의 지도 아래 초등 및 중등 과정을 마침

| 1998년 |

- 06월 16일 7세가 된 직후, 페레고(Perego)에 있는 성 암브로시오의 로미테 수녀원(Convent of the Romite Sisters of Saint Ambrose)에서 첫영성체

| 2003년 |

- 05월 24일 산타 마리아 세그레타(Santa Maria Segreta) 본당에서 견진성사(Confirmation)를 받음

| 2004년 |

교회 승인을 받은 전세계 모든 성체 기적과 성모 발현을 담은 웹사이트 개발착수

| 2005년 |

- 02월 프랑스 루르드 성모성지 방문
- 09월 예수회가 운영하는 레오 13세 고등학교(Leo XIII Institute)에 입학

| 2006년 |

- 02월 파티마 성모 성지 방문
- 10월 02일 병에 걸림. 처음엔 일반 독감으로 판단
- 10월 04일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성체 기적과 성모 발현을 담은 웹사이트 공개

10월 08일 상태가 악화되어 밀라노의 데 마рки 클리닉(De Marchi Clinic)으로 이송, 급성 백혈병(M3형) 진단을 받음

10월 09일 몬차의 산 제라르도 병원(San Gerardo Hospital)으로 이송

10월 10일 죽음을 직감한 카를로가 병자성사와 영성체를 요청

10월 11일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짐. 오후 5시에 뇌사 판정

10월 12일 오후 6시 45분 선종

10월 14일 산타 마리아 세그레타 성당에서 장례 미사 거행. 수많은 조문객으로 성당 밖까지 인파가 몰림

| 2007년 |

01월 카를로의 유해,
피에몬테 테르넝고(Ternengo) 묘지에서 아씨시 묘지로 이장

| 2012년 |

10월 12일 시복 시성을 위한 공적 조사 착수

‘하느님의 종(Servant of God)’으로 불리기 시작함

| 2013년 |

05월 13일 교황청, 시복 시성 절차에 문제 없음(Nihil Obstat)을 승인

‘하느님의 종’ 칭호 공식적으로 받음

| 2016년 |

11월 24일 양젤로 스콜라 추기경(Cardinal Angelo Scola) 주재 아래 밀라노 대교구청에서 교구 차원의 조사 절차 종료

| 2018년 |

07월 05일 교황 프란치스코, 카를로를 가경자(Venerable)로 선언

| 2019년 |

01월 23일 유해 발굴(Exhumation)

04월 06일 유해를 아씨시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으로 이장

| 2020년 |

02월 교황 프란치스코, 교령을 통해 첫 번째 기적 진정성 확인

10월 10일 아씨시에서 시복

| 2024년 |

05월 23일 프란치스코 교황, 아쿠티스 전구로 인한 두 번째 기적 인정

시성 선포 승인

07월 01일 시성 승인

11월 15일 카를로 아쿠티스 유해 한국교회 16개 교구에 전달

| 2025년 |

09월 07일 시성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순수한 영혼이 가진 선한 뜻과 아름다운 의지를
보다 많은 분에게 알려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선교 후원부
연락처 : 1588-2597

2000년대를 우리와 함께 살았던 한 소년 성자의 이야기

성 카를로 아쿠티스(San Carlo Acutis)

교회인가 : 서울대교구 2025년 7월 29일

발행일 : 2025년 9월 7일

발행인 : 구요비 주교

편집인 : 조정래 신부

발행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주소 : 04552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30 (저동 1가 2-3) 평화빌딩

전화 : 02-2270-2114

팩스 : 02-2270-2210

편집 : 월간 꿈CUM

디자인 : 윤경숙

인쇄 : 금강기획인쇄

비매품